

환대, 평등 그리고 섬김을 위한 기독교윤리

-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이동호 (목원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함께 존재함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 1. 혐오를 넘어 평등, 환대 그리고 섬김을 위한 공동체
- III.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신학적 토대: 삼위일체 신학
- IV. 삼위일체적인 삶: 각자도생이 아닌 상호 의존적 환대 공동체를 꿈꾸며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13>

• ABSTRACT •

Christian ethics for hospitality, equality and service:
with a focus on the Trinity theology

LEE, DONG HO (Lecturer, Mokwon University)

Some of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society we live in today seem to start from treating others as enemies. Students and teachers, our house and our neighbors' houses, men and women, new and old generations, indigenous people and residents, opposite sex and same sex, etc. are divided into dichotomies regardless of the object or category. In the conflict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the meaning of diakonia and hospitality gradually disappears, since only the host considers the other as a guest who must be hostile. Today, as the conflict in society increases more and more, we need a shift in thinking that is simple but difficult to implement, such as changing the positions of the host and guest. It is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hospitality and serving before we are consumed by hostility that we can no longer escape.

This paper looked into what the Christian ethic is for hospitality, equality, and service in three main parts. First, we examined Jesus' teachings for a community of equality, hospitality, and service that goes beyond hatred. Second, we looked at the theology of the Trinity, which is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building a true community that affirms and embraces others. Finally, the importance of hospitality and service for community living together rather than living independently was mentioned.

Key words: society, community, hospitality, service, Christian ethics

I. 들어가는 말

국가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는 GDP의 규모가 2024년 현재 세계 14위¹⁾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부유한 선진국의 모습과는 다르게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되어 가는 사회,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더 나아가 부유한 선진국 한국 사회라는 이름 뒤에 부와 사회적 지위가 세습되는 견고한 계급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불평등, 나의 권리만이 소중하고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지독히 이기적인 각자 도생의 가치관, 국가와 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신까지 모든 현상이 마치 누구도 풀 수 없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우리 사회를 옥매이고 있다. 특히 권력과 경제력의 여부로 학벌과 직업에 따라 계층 구조 사회를 이루는 한국 사회는 다름과 차이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이라는 사회를 넘어서 어느 사회에서든지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함을 누리지 못하고 열등한 취급을 당하고 차별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한다.

솔직히 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거지’

LH 공공 임대주택에 붙은 안내문에 적힌 두 글자 “거지”라는 단어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²⁾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언어 “임거”라는

1) 강진규,(2024.04.29.),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51711> (2024년 9월 5일)

2) 한 LH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자치회장의 공지문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취지는 흡연문제를 놓고 금연을 부탁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지만 그 파장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했다.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본인을 거지와 비유하며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단어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임대아파트 + 거지의 합성어이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임대 아파트나 그 외 주거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명칭이다. 이 밖에도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빌거(빌라 사는 거지), 엘사(LH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사는 사람)의 용어가 존재한다. 경제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나뉘는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차갑게 보여주는 단어들이다. 고도의 경쟁만이 존재하는 사회, 승자와 패자의 이분화가 점점 더 노골화 되어져가는 사회, 상업주의에 물든 상투적인 미소만이 존재하는 사회, 경쟁에서 이겨야만 그때야 비로소 짓게 되는 자기만족의 승리의 미소만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타자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미소는 우리 사회에서 잊혀져 가는 것 같다. 타자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보며 받아들이고 그를 온전한 존재로 '환영'하는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진정한 웃음과 미소는 점점 만나기가 힘들다. 누군가를 조롱하며 혐오의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함께 공감하며 웃어주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 우월과 열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등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고착화 시키는 사회에서 타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 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연구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중요한 환대, 평등 그리고 섬김의 기독교 윤리 의식을 삼위일체 신학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혐오를 넘어서 환대, 평등 그리고 섬김으로 연대하는 사회 공동체를 위한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환대와 섬김이 넘쳐나는 인간 사회 공동체의 원형과 토대

가 되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자도생을 외치며 개인주의 성공에 취해 있는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감을 위한 환대, 평등 그리고 섬김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함께 존재함을 넘어 함께 살아가기

혐오는 약자를 공격하는 가장 편리한 수단 중에 하나이다. ‘나라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보편적 다수’를 명분 삼아 은밀하게 더 나아가 비열하게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다. 보통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원래 그런 사람이예요’라는 표현으로 ‘나만 아니면 되는’ 생각으로 남을 공격한다. 혐오는 인간의 본성이기보다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를 전염시키는 질병과도 같다.³⁾ 기본적으로 혐오는 연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겁하고 응졸한 폭력이다. 즉 혐오는 주류에 의해 비주류에게, 다수에 의해 소수에게, 강자에 의해 약자에게 행해진다.⁴⁾ 혐오는 혐오의 주체자와 혐오 대상자 그리고 그들의 주변인들의 인격과 삶을 쉽게 파괴한다. 혐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을 해체 시킨다는 것이다. 혐오는 양심의 가책이나 이성적 성찰을 방해하고, 타인의 고통이나 비극에 대한 공감도 막는다.⁵⁾ 혐오 근본적인 문제에는 자신을 우월하게 보는 반면에 타자를 열등하고 미천하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우월감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다.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은 혐오할 만한 이유가 있는 열등한 인간들이므로 내가 혐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고방식. 따라서 나보다 열등한 타자는 차별하고 혐오공격

3) 김태형, 『혐오시대 헤쳐가기』 (경기도: 열린책들, 2019), 27.

4) 배덕만, “혐오와 한국 교회, 그리고 근본주의,” 권지성의 지음,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 123.

5) Carolin Emcke, *Gegen den Hass*,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파주: 다산초당, 2017), 24.

을 해도 된다는 혐오 논리가 성립된다. 이런 편견으로 무장한 사람은 약자에게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힘없는 약자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기보다는, 이를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게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혐오는 그 피해가 단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다.⁶⁾ 혐오는 우리 사회의 공공의 선을 파괴하고 있다.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다수의 조직적 제도적 사회적 공공선의 파괴다. ‘혐오’와 ‘혐오표현’ 그리고 그로 인한 ‘혐오범죄’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이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타적인 섬김과 나눔 그리고 평등보다는 혐오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 ‘혐오’는 사회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며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더 큰 문제는 ‘혐오’는 살인, 테러와 같은 강력한 범죄 속으로 이어지기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1. 혐오를 넘어 평등, 환대 그리고 섬김을 위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은 그분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사랑과 용서와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환대와 섬김이다.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타자에 대한 환영 그리고 후한 대접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런 구별 없이 “타자”

6) 홍재희, “혐오를 짚어내는 사회,” 『인권』 116(2018), 7-9.

에 대한 환대를 베푸신 분이셨다. 그는 죄인과 종교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환대하신 분이셨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떠한 두려움과 율법에 억눌리지 않고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멸시 받고 능욕 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모든 사역 중에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환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고 빵이 되어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절정이기도 하지만 환대의 절정을 이루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는 환대의 삶이었고, 죽으면서도 환대를 베푸셨고,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조반에 초대하십시오(요21)으로 모든 순간 환대를 행하셨다. 그리고 그의 환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길이 오르게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⁷⁾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환대 받았기에 우리가 타자들을 환대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즉 ‘환대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⁸⁾이 녹여 있는 것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가 서로를 왜 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되며, 환대가 ‘우리 삶의 의무이며 사명의 핵심’임을 알게 된다.⁹⁾

타자에 대한 진정한 환대의 인식적 출발점은 그 타자를 존엄성을 지닌 평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대의 의미가 우리 사회 여러

7) Boersma Hans, *Violence,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윤성현 옮김.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56.

8) 김재우, 『기꺼이 불편한 예배-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 (서울: 이레서원, 2021), 184.

9) Joshua W.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옮김. 『환대와 구원: 혐오·배제·탐욕·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3.

곳에서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 ‘환대’의 일반적인 의미 ‘환영’이 사라지고 ‘교환경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말해 금전적 거래가 오고가야 비로소 미소가 띄어지고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환대는 동질성 즉 가족, 친구, 동일한 종교, 동인한 학교 출신, 동일한 국적, 동일한 사회계층, 동일한 지역 출신 등 자신과 동질성을 공유해야 타자를 ‘환영’한다. 진정한 환대는 자신과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한국인,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계층의 사람에게만 환대가 적용된다.¹⁰⁾ 예수 그리스도와 삭개오의 만남은 환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눅 19:1-10)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사회중심부에 있지 못하고 사회주변부로 밀려나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은 인물이다. 키가 작은 삭개오 그는 왜소증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장애인”을 열등한 사람 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또 그는 세리장이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소유한 부자였던 인물이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 그리고 죄인과 동의어였다. 부유한 삭개오였지만 그는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인물이었다.¹¹⁾ 이러한 다층적 차별과 배제의 요소들을 지닌 삭개오는 살아 있지만 살아 있다고 말 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예수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한 ‘인간’으로 바라보며 그를 부른다. 이 부르심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먼저 예수는 삭개오를 정죄의 대상도 아니요, 멸시와 혐오의 대상도 아닌 존엄함을

10) 강남순, 『테리다와의 데이트』 (파주: 행성B, 2022), 242-244.

11) David, E Garl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정옥배 옮김. 『강해로푸는 누가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8), 829-830.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 그를 부르셨다. 두 번째 예수의 부르심은 주변부에서 보이지 않은 한 존재를 모든 사람의 중심부로 초대하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삭개오에게 오늘 당신의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신다. 예수가 삭개오와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르시겠다고 한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따돌리고 멸시하는 사람 삭개오를 만난 예수는 그를 ‘죄인’이라는 뜻에 넣지 않는다. 예수는 삭개오에게 율법의 기준으로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는 한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바라보는 평등의 시선을 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심으로 그의 존엄함을 인정해 주셨다. 죄인이며 열등하다고 취급당하는 불평등, 혐오 그리고 멸시를 넘어서서, 예수와 동등한 친구가 되는 ‘평등의 관계’로, 그리고 차별과 배제라는 불의의 관계를 파기하고 ‘정의로운 관계’로 삭개오를 부르셨다. 예수의 가르침 그것은 “함께 살아감”이었다.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과 유사한 환경과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 동료, 가족 또는 부유한 이웃에게만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아주신다. 예수의 가르침의 환대는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는 환대이다. 다름을 멸시와 환멸로 보려는 인간의 오만한 시선을 바라 잡아주시는 환대이다. 사회 주변부에 있는 이들에게 환대하라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나 보상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환대’이다. 예수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이들을 초대하고 환영하라고 가르치신다.¹²⁾

신약성서 안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계명은 단지 감정의 표현으로 또는 단순한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온전한 관심과 연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한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섬김과 환대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

12) 강남순, 『철학자 예수 -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김포: 행성B, 2024), 281-288.

된다. 이웃사랑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폄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가분의 관계 아래 놓여져 있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이웃사랑의 디딤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섬김과 환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맞이하는 것이다.¹³⁾

예수의 가르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최후의 심판의 비유” 역시 우리에게 환대와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시작한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이해한 영원한 생명은 행위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진 질문이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배타적인 신앙인의 모습,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류의 증오로 가득 찬 자신의 의와 교만에 빠진 질문이었다.¹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위해 예수에게 던지는 질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섬김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 이웃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전환하기 위해 예수가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전환된다. 섬김과 환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예수는 가르치고 있다.¹⁵⁾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가장 합당한 자임을 선언해야만 했

13) Herbert Haslinger, *Diakonie - Grundlagen fuer die soziale Arbeit der Kirche*, (Paderborn: Schoeningh, 2008), 246-247.

14) 한규현, 권혁남, “혐오의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훑어보기,” 『인문사회』 14(2023), 3266.

15) 참고, 이동호,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과주: 서로북스, 2023), 23-24.

던 율법학자, 그는 자신의 혐오를 그리고 차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예수의 비유 속에 나타난 환대의 윤리는 내가 모르는 존재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 그것은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의 어떠한 윤리적 위계질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항상 시혜자는 늘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수혜자는 열등하다고 생각한다. 환대와 섬김을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이분법으로 구현하는 것은 동정이나 기부와 같은 일방적인 하향식의 접근 방식이다. 환대와 섬김은 일방성이 아닌 상호 의존적 ‘함께’의 형태를 지녀야 한다.¹⁶⁾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와 병행선상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최후의 심판의 비유”에서 가장 작은 자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자들과 예수는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환대의 의미는 존엄함과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낮은 이들과 함께 섬김과 돌봄의 상호관계를 통해 연대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필요, 고통, 희망 그리고 갈망에 의해 자신이 사랑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비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환대는 자신의 것을 모두 지키면서 내어 줄 수 있는 것만 내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비워 타인의 자리를 자신의 삶과 마음에 내어 주는 것이자, 타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채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바로 ‘생명이며 함께-잘-살아감의 길’이다. ‘모든 사람’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지닌

16) Letty M. Russel, *Just Hospitality*, 여금현 옮김.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75-186.

17) 김진혁,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2021), 104.

평등한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계” (아모스 5:24)는 늑대, 어린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어린아이, 암소, 곰, 사자, 젓 먹는 아기, 독사 등으로 상징되는 극도의 ‘다름’을 지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모두 사라지는 세계(이사야서 11:5-9)다.¹⁸⁾

III.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신학적 도대: 삼위일체 신학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개인주의이다. 이에 대립되는 집단주의 또한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인주의는 인간의 합리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장점이 분명히 부각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자아중심적인 가치관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제하고, 심지어 혐오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많은 병폐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한 이웃과 공동체의 상실이다. ‘각자도생의 삶’,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 ‘타인에 대한 무관심한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모순되는 삶의 방식이다. 관계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존재 및 인간 사회는 분리되고 단절된 자아들이 아니라, 이미 관계성과 공동체성 안에 있는 존재이며, 그 안에서 환대와 섬김 그리고 하나 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은 이러한 관계성과 공동체성을 부인하고 각자의 개별적이고 독립된 자아를 내세운다.

타자를 긍정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상적 토

18) 강남순, 『철학자 예수 -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294.

대가 바로 삼위일체 신학이다. 삼위일체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열림과 수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자신의 존재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열려짐과 수용성에 대하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서로 구별되는 상이한 존재들이 지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삶, 다양성 안에서 하나 됨과 연합의 지향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 아닌, 세 위격이라는 다양성을 자신의 존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통일체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된 인격이시나 이 삼위는 동일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면에서 동등하시되, 세분의 하나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 계신다.¹⁹⁾ 이러한 삼위일체 정의에 따른 다양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원리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각기 종류대로 다양하게,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다.(1:11-12, 21,25) 즉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그분의 의지대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독특하고 다양한 모양과 특성을 부여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다양하고 그리고 구별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함께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심이 그분의 선택이셨다.²⁰⁾ 다시 말하면 ‘피조됨’이란 고독한 실존이기 보다는 철저한 공존이며 상호의존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음을 증언한다.(창1:27). 이것은 인간에게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인간은

19) 정성욱, 『삶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서울: 홍성사, 2013), 19.

20) 위의 책, 109-110.

본질상 관계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곧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하나님이 타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타자를 위하여 존재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²¹⁾ 인간이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언제나 타자와 열린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와 연합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모두에게 선을 행하는 관계, 즉 다함께 풍요로움과 나눔의 삶을 영위하고 소통하는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이다. 관계적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서, 공동체적 존재로서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삶, 사랑과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삶, 즉 삼위일체적인 삶으로 인도한다.²²⁾

하나님의 세 위격들이 서로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나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과 수용 그리고 환대와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위격은 '자신 안에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더 이상 단순화 될 수 없는 개별성이다. 이 개별성은 타자를 향해 항상 열려 있는 존재이다. 위격은 관계적 존재이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격으로서 말할 때 인간의 각 존재 안에서 항상 '나-당신'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21)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옮김,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134-135.

22) Leonardo Boff,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김영선 김옥주 옮김, 『성삼위일체 공동체』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11), 72-74.

된다. ‘나’는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나’ 안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을 반영한다. ‘당신’은 타자의 ‘나’와는 다르고 동시에 그 타자를 향해 열려 있는 또 다른 ‘나’이다. 나와 당신 사이에는 연합이 있다. 나와 당신은 ‘우리’라는 연합이 일어난다. ‘우리’를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계시하는 것이다. ‘나’는 성부에 의해 보여진다. ‘나’는 아들인 ‘당신’을 일으킨다. 이들은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에게 관계된 말씀이다. 이 관계로부터 영원한 대화가 흐르게 된다. 아버지(나)와 아들은 하나가 되고 ‘우리’를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는 ‘우리’ 성령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이다.²³⁾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위격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안에서 타자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존재 방식을 유지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 되심과 연합을 지향하시므로써,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영위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정확히 서로 구별되는 인격적 특성을 통해 서로 안에 거하며 서로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눈다.²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긍정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시다.²⁵⁾ 이러한 시도들은 위격을 개별적으로 분리되거나 단절된 존재로 보지 않고, 서로 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적 존재로 보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런 이해는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의 개념²⁶⁾이다. 페리코레스시스는 “상호내주” (mutual indwelling), “상호관통” (mutual penetration), “상호참여” (mutual participation) 등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성부

23) 위의 책, 87-88.

24) Jurgen Moltman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he Doctrine of God*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1), 150.

25) 백충현, 『삼위일체신학의 핵심과 확장』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241-242.

26) 페리코레스시스의 성서적 근거는 특히 요한복음 14장 10-11절이다. 웨슬리신학연구소,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 관계적 삼위일체론의 역사』, (서울: 아바서원, 2015), 44.

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구별된 위격이지만, 이 위격들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개별자로 존재하는 세 분의 하나님들이 아니라, 상호 내주의 방식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주해 계신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내주해 계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내주해 계신다.²⁷⁾ 페리코레스시라는 용어가 표현하듯 세 인격은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극히 환대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홀로 거하시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그 본질로 가지는 사귀의 존재, 곧 관계적 그리고 공동체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폐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위격들과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열려있는 사회적 그리고 대화적 존재이다.²⁸⁾ 인격들 사이의 교제로서 이해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평등한 형제, 자매의 사회를 위한 기초를 놓는다. 하나님은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온전한 자유와 평등의 사귀 안에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이 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이 실현되는 공동체적 삶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삼위일체 신학은 이제 기독교 사회윤리의 바탕이 된다. 서로 다른 문화, 인종, 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를 기도하는 기독교의 희망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응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전체주의를 거부하며, 공동의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개인주의를 또한 거부한다.

27) 정성욱, 『삶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61-62.

28) 이문균, 『신앙과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보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51.

29) Leonardo Boff,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8), 6.

삼위일체에 따르면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성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원천이 된다.³⁰⁾

하나님을 삼위일체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이 본질적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임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서 이야기는 하나님을 죄와 죽음을 이기고 공감하는 사랑의 힘으로 규정한다.³¹⁾ 공감이란 함께 고통하는 것이다. 독일어 “Einfühlung”은 공감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체험함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분담하고 나누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³²⁾ 성서적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피조물과 함께, 또 피조물을 위하여 고난당한다.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세계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소외와 죽음의 길을 가신다. 하나님은 자유 가운데서 영원히 사랑하시되,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곳까지 이르도록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 사랑은 인간의 시간성(temporality), 학대, 고난, 죽음의 깊은 곳까지 이른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서로 자신을 내어 주며 끊임없이 사랑하는 살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정적으로 계시되며, 그것은 인간이 우정, 공감, 희생적 사랑, 포용적 공동체 등을 이루는 데에 그 원천과 힘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얻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들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인정하시는 이름

30) 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옮김.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110-112.

31) 위의 책, 115-116.

32) 참고, 이동호,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22.

다운 사귄과 교통 가운데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코이노니이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섬김의 디아코니아로 완성된다. 이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에게 종노릇 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디아코니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³³⁾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한 공동체의 모습은 형제자매들의 차별적 사귄, 곧 지배와 종속, 특권과 억압의 질서가 없는 상호 간의 사랑과 섬김이 기초가 된 공동체이다.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에 대해 인내하며 서로를 붙잡히 여겨야 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인정하시고 존경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노릇 하며 서로의 짐을 저 줌으로써 그리고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IV. 삼위일체적인 삶: 각자도생이 아닌 상호 의존적 환대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 환대와 섬김이 넘쳐나는 인간 사회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삼위일체 공동체이다. 삼위일체 연합으로서 영감을 얻은 사회는 계급의 차이와 본인 자신과 타인들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회는 모든 면에서 참여와 연합에 기초해 사회구조를 이루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삼위일체론은 우리를 친밀한 유대감과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모

33) 정성욱, 『삶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117.

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필연적인 유대감 없이 개인의 실적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연합의 가능성을 배제시킨다.³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사회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사회의 기반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사회는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 같은 건 없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영국 71대 총리,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정치인 마거릿 대처 (Margaret Thatcher)가 한 말이다. 그녀는 사회란 없고, 남성과 여성, 가족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사람들 스스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녀의 주장은 복지국가를 축소하는 이유가 되었다. 실제로 그녀의 집권 이후 영국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에서 가장 후진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³⁵⁾ 성공의 덫에 빠진 한국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바로 대처 총리가 한 말인 것 같다. 사회란 없고 그저 개인이 각자의 안락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고 GDP 규모도 세계 14위권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복지는 확대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안전은 국가가 아니

34) Leonardo Boff,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김영선 김옥주 옮김. 『성삼위일체 공동체』, 107-108.

35) 윤홍식, 『이상한 성공』 (서울: 한겨레출판, 2021), 186.

라 개인이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과정 속에서 분배도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며 지켜주는 공적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식보다는 성장을 통해 시장에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의한 것이지,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공적 복지가 아니라 사적 자산 축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 되어버렸다. 이 생각은 서로가 손을 잡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환대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각자도생의 삶을 더욱 부추기는 현상이 되어버렸다.³⁶⁾ 각자도생이 제도화된 사회에 산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한국인들은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특권에 분노하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피가 거꾸로 도는 울분을 느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한다. 불평등과 비정규직이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청년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려고 하자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다.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성장제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부모의 부나 사회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내 기회를 가로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 출산율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스스로 죽거나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청년의 미래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접어도 한

36) 윤홍식, “한국 복지 국가의 불편한 이야기,” 김윤탈의 지음, 『한국의 불평등』 (파주: 한울, 2022), 396.

국 사회는 그것이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면 눈도 깜짝하지 않을 사회가 되어버렸다. 각자도생의 사회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를 감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무서운 믿음이 ‘공정’이라는 탈을 쓰고 만들어진 것이다.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한국사회의 경제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성장을 위해 노력한 사회가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연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³⁷⁾

환대와 섬김이 자본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환대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친절을 나타내는 의미로 축소되었을 뿐 사회, 정치, 경제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순히 개인의 만족과 향유로만 전락하고 말았다. 환대와 섬김의 본질적 의미가 타인을 존중, 사랑, 섬김, 나눔, 공감, 연대의 태도를 보이는 윤리적 행위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철학적 사변적 의미로 전환된 것 같다.³⁸⁾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는 자신은 그들의 집단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것이며, 그들처럼 평가되는 또 다른 사회적 시선이 싫은 것이고, 누군가가 자신 밑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쟁 승리의 희열을 느끼고 싶은 인간의 못된 심리이다. 즉,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하고 배척하면서도 자신 스스로를 그들과는 다른, ‘참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의식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다. 지금은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생각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특히 인간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함께 공동의 노동을 통한 가난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생명 유지

37) 위의 책, 367.

38) 참고 박한별, “모방에서 상상으로 정의로운 환대(Just Hospitality)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57(2023), 27.

를 위한 노력들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를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노력이 앞서야 한다.

V. 결론

예수의 가르침 그것은 “함께 살아감”이었다. 그의 삶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먹고, 그들 삶의 문제에 개입하고 연대하는 삶이었다. 그 어떤 경계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의 삶을 살았던 예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환대를 가르쳐 준 예수가 우리의 삶의 뜻대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 관계된 것이었다. 예수는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시면서 “어떻게”라는 살아감의 지혜와 길을 나누셨다. 각자도 생을 외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공에 취해 있는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환대와 섬김 그리고 연대하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환대와 섬김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 받은 우리는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성서의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와 섬김은 “떨시받고, 거절당하고, 곤궁한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적 메시지의 초석이다.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이 공동체로 받아들여셨기에 환대윤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려 할 때 환대와 섬김은 시작된다.³⁹⁾ 사회적

39) Letty M. Russel, *Just Hospitality*, 여금현 옮김, 『공정한 환대』, 161.

인 약자 그리고 타자에 대한 기독교적인 응답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더 나아가 함께 기뻐하는 사랑과 섬김의 윤리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성적으로 이해됨을 넘어서야 한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버리시면서 인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공감하며 연합하고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삼위일체 신학은 공감, 연민, 섬김, 용서, 화해, 연대, 상호 의존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표출될 수 있다. 자기 나눔,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디아코니아에 참여하는 윤리적 기준이 된다.

참고문헌

- 강남순. 『철학자 예수 - 종교로부터 예수 구하기』. 김포: 행성B, 2024.
- 김태형. 『혐오시대 헤쳐가기』. 경기도: 열린책들, 2019.
- 김재우. 『기꺼이 불편한 예배-환대와 우정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 서울: 이레서원, 2021.
- 백충현. 『삼위일체신학의 핵심과 확장』.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 배덕만. “혐오와 한국 교회, 그리고 근본주의,” 권지성 외 지음, 『혐오와 한국교회』. 서울: 삼인, 2020.
- 이문균. 『신앙과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보기』.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이동호.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파주: 서로복스, 2023.
- 윤홍식. “한국 복지 국가의 불편한 이야기,” 김윤태 외 지음 『한국의 불평등』. 파주: 한울, 2022.
- _____. 『이상한 성공』. 서울: 한겨레출판, 2021.
- 정성욱. 『삶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서울: 홍성사, 2013.
- 김진혁. “환대와 선택: 환대의 신학을 위한예정론의 재해석,” 『장신논단』 53(2021), 95~125.
- 박한별. “모방에서 상상으로 정의로운 환대(Just Hospitality)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57(2023), 261~290.
- 한규현, 권혁남. “혐오의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토크하기,” 『인문사회』 14(2023) 3261~3274.
- 홍재희, “혐오를 짚어내는 사회,” 『인권』 116 (2018), 1-58.
- Garland, David, E.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정옥배 옮김. 『강해로푸는 누가복음』.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18.
- Jipp, Joshua W.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일 옮김. 『환대와 구원: 혐오·배제·탐욕·공포를 넘어 사랑의 종교로 나아가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Boff, Leonardo. *Holy Trinity Perfect Community*, 김영선, 김옥주 옮김. 『성삼위일체 공동체』. 서울: 크리스천 헤럴드, 2011.

- Emcke, Carolin. *Gegen den Hass*,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파주: 다산초당, 2017.
-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장경철 옮김.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Russel, Letty M. *Just Hospitality*, 여금현 옮김. 『공정한 환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윤성현 옮김.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4.
- Boff Leonardo. *Trinity and Society*.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8.
- Haslinger, Herbert. *Diakonie - Grundlagen fuer die soziale Arbeit der Kirche*. Paderborn: Schoeningh, 2008.
- Moltmann, Jurgen. *The Trinity and the Kingdom: The Doctrine of God*.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1.
- 강진규(2024.04.29.), 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951711> (2024년 9월 5일)
- 구병수(2024-09-02), “거지는 거지답게 절약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20538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902072756 (2024년 9월 11일)

논문투고일: 2024년 11월 14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마치 타인을 적대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 학생과 교사, 우리 집과 이웃의 집, 남성과 여성, 신세대와 구세대, 토착민과 주민, 이성과 동성 등등 그 대상과 범주에 관계없이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다. 개인과 집단 사이의 갈등은 오로지 주인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적대해야 할 손님으로 간주하기에 섬김과 환대의 의미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의 깊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과 손님의 자리 바꾸기라는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사고의 전환일 것이다.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적대감에 침식되기 전에 환대와 섬김에 대한 사유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환대, 평등 그리고 섬김을 위한 기독교윤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혐오를 넘어 평등, 환대 그리고 섬김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타자를 긍정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가 되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자도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위하여 환대와 섬김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제어: 사회, 공동체, 환대, 섬김, 기독교 윤리
